



노인들 "내 일자리 어디에..." '2008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1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실버 구직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구인업체, 구직자 등 모두 5천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6천여건의 취업 희망 신청서가 접수됐다. <관련기사 9면>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비수도권 강력 반발

### "지방경제 낙후 심화"

정부가 당초 '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뒤집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식화함에 따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광주·전남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2·4·5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균형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 방안을 찾고 있으며, 지역 기업인들도 "지방 경제낙후를 심화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에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포함시켰다. 이는 공장총량제 등을 풀어 사실상 수도권 공장 설립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도 이르면 다음달 내 수도권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기업들이 기업환경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몰림으로써 지방경제의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도가 투자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투자유치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은 물론 이전 기업의 수도권 'U턴' 현상도 예상된다.

이명박 광주·전남지 역기회관리실장은 "새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미처 시행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결국 지방의 기업유치 노력을 꺾어놓는 정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과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계획은 SOC(사회간접자본) 기반이나 복지시설 등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방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앞으로 외자 및 기업체 유치도 물론 건널 수박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영태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역 내 각 지자체들이 기를 쓰고 기업체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은 고사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종태·윤영기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전남 개인 파산·워크아웃 급증

### 파산 1년 새 5배·워크아웃 22% 늘어

### '생활고' 40~50대 신용불량자 속출

고물가와 불황 등의 여파로 올 들어 광주·전남의 '개인 파산' 및 '개인 워크아웃' 신청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지역 서민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가 1년새 5배나 급증한 데다 생활고로 인한 40~50대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파산이 줄을 잇고 있다.

18일 광주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의 '개인파산' 선고 건수는 6천853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371건)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불황

과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빚더미'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박모씨(44·광주시 남구)는 지난해 실직과 아내의 가출 등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3천400여만원의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 2·4분기 광주·전남의 워크아웃 신청자는 1천350명으로, 1·4분기(1천110명)보다 21.6%(240명) 늘었다.

이같은 신청 규모는 지난 2006년 1·4분기(1천412명) 이후 가장 많은

▲개인파산 = 과다한 대출이나 빚 보증 등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면책 결정만 나오면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채무를 없앨 수 있다.

▲워크아웃 = 재산과 임금 등을 고려해 최고 5년간 채무의 일정액을 갚게 한 뒤 나머지는 면제하는 것으로 대부분 원금의 10~40%를 면제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2·4분기(41.9%)에 비해 7.2%나 높아진 것으로, 지역 내 40대 이상 가장들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반면 20~30대의 워크아웃 신청 비중은 지난해 2·4분기 58%에서 올해는 50.9%까지 줄었다. 광주·전남의 워크아웃 신청자 가운데 30대 이하의 비중이 50% 초반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은 워크아웃 누적 신청자(3만4천49명) 가운데 20~30대의 비중이 58.8%에 달하는 등 신용불자 10명중 6명 가량이 30대 이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과거 '카드 대란' 당시 사치성 소비 여파로 20~30대가 대거 신용불량에 등록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생활고에 따른 40~50대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 33.7도

### 기상관측 69년만에

### 9월 최고기온 기록

18일 낮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3.7도까지 올라가는 등 기상 관측 69년만에 가장 무더운 9월 중순 날씨를 기록했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평균 34.9도를 최고로 구별 34.2도, 나주 34도, 광주 33.7도 등 한여름 불볕더위를 보였다.

광주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주기상청이 1939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지금까지 광주지역 9월 중순 최고 기온은 1998년 9월 19일 33.7도도 같았지만 날씨가 하루 빨리 기록을 갱신하게 됐다.

이번 무더위는 태풍 실라코 영향을 받아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 됐기 때문이라고 광주기상청은 분석했다. /강필성기자 kps@

## 주가 폭락, 환율·금리 폭등 ... 금융시장 '혼돈'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18일 국내 금융시장은 또다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혼란에 빠졌다. <관련기사 6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뉴욕 증시 급락 등의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32.84포인트(2.30%) 하락한 1,392.42로 장

을 마쳤다. 이는 이틀전 기록한 올해 장중 최저치(1372.55)를 경신한 것이다. 외국인도 이날 4천993억원을 순매도하는 등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이날 증시는 미국 정부가 AIG에

850억달러를 제공키로했으나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에도 파산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1.17포인트(2.51%) 떨어진 433.76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발 신용경색

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크게 치솟았다.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날보다 달러당 37.30원 폭등한 1,153.30원으로 마감했다.

채권금리도 폭등했다.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29%포인트 뛰어오른 연 5.89%로 마감했다. 이같은 상승폭은 지난 2003년 3월12일(0.51%포인트)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2008 광산업의 날' 행사

9월 19일 유공업체 표창·체육대회도

광주의 차세대 주력산업인 광(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광산업의 날'이 올해로 4회째를 맞습니다. 광주일보사와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는 정부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오는 19일 광산구 첨단체육공원에 '2008 광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광산업 관련업체 임직원과 가족·시민 등 2천여명이 참여하는 '광산업의 날' 1부 행사에서는 체육대회가 펼쳐지고, 2부에서는 광산업 발전 유공업체에 대한 표창과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 축제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광산업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9월 19일(금) 오후 1시30분~오후 10시20분
- 장소: 광주시 광산구 첨단체육공원
- 주최: 광주일보사·한국광산업진흥회·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
- 후원: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기관·단체

光州日報社

악어같은 기업-금호아시아나

악어 없는 악어새? 악어새 없는 악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함께할 때 서로의 가치를 느끼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상생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며 함께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일! 금호아시아나는 협력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